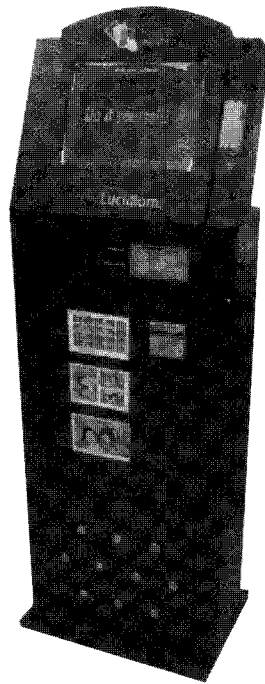


디카자판기 시장 개척 선두주자 '디카존 포토박스'

올 하반기 자판기 시장 제품화 동향에 있어 가장 주목되는 제품군은 디지털사진인화자판기이다. 많은 업체들이 이 품목을 개발하며 시장 참여를 준비하고 있어 과거 스티커자판기 초창기 못지않은 뜨거운 시장도전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 분야가 이렇게 각광을 받게 된 것은 폭발적으로 확대되는 디지털카메라의 보급 동향과 맞물려 있다. 디지털카메라의 보급은 디지털사진의 다양한 활용을 위해 인화수요 역시 확산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 인화시장에 대한 시장특수를 디지털사진인화자판기가 공략해 나가게 된다.

이러한 디지털사진인화자판기 시장에 있어 가장 발 빠른 시장공략을 진행하는 업체는 한국콘락스이다. 그간 자판기 핵심부품 전문업체였던 한국콘락스가 완제품 분야로는 최초로 시장 도전을 할 만큼, 이 시장의 가능성은 높게 평가되고 있다.

디지털사진인화자판기 시장의 선두주자 한국콘락스의 '디카존 포토박스'를 집중취재했다.



디지털카메라 판매는 2004년까지 보급대수 250만대에 이르면서 연평균40% 이상 성장을 구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디지털카메라 보급률이 높아짐에 따라 사용자들이 손쉽게 인화서비스를 받으려는 수요도 크게 늘어 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디카존 포토박스'는 현재의 디지털카메라 인화방법인 온라인인화서비스 또는 가정에서의 출력력을 대신하여 포토키오스크를 이용한

인화시대를 지향하고 있다.

국내에는 약10여개의 디지털카메라를 인화해 주는 온라인사이트가 운영중이나 자판기방식의 디지털카메라의 인화서비스 제공은 '디카존 포토박스'가 최초이다. 디지털 카메라 보급률이 50%를 넘어서는 2005년 이후에는 자판기 방식의 디지털인화 및 오프라인 디지털인화점이 핵심 인프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국콘락스는 고객들이 신속하고 저렴한 가격에 고품질의 디지털사진 인화를 하기 위해 언제 어디서나 접근할 수 있는 '디카존 포토박스'를 대량 공급해 나갈 예정이다.

'디카존 포토박스'는 디지털카메라 및 디지털캠코더 사용자들이 촬영한 사진을 착탈식 메모리를 사용하여 즉석에서 3x5, 4x6, 5x7 등으로 인화 가능한 제품이다. 또 온라인서비스를 통해서서는 8x10, 10x12 사이즈까지 인화서비스가 가능하다

또한 증명사진, 반명함판, 여권사진 등으로 인화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며, 촬영한 사진을 선별하여 다양한 이미지 배경과 합성해서도 인화를 할 수가 있다. 여러 장의 사진을 한장의 인화지에도 인화가 가능하며, 국내 연예인 및 스포츠 스타의 사진을 즉석 인화하거나, 자신의 사진과 합성하여 뽑아볼 수가 있다. 아울러 배경화면광고, 착탈식광고 등 다양한 광고를 제공할 수 있어 부가수익 창출까지 가능하다.

결제기능은 현금과 각종신용카드를 지원함으로써 사용자가 원하는 결제방식으로 쉽게 주문을 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콤팩트플래쉬, 스마트미디어, 메모리스틱, SD Card, XD Card 등 다양한 메모리를 지원함으로써 사용자가 소유한 메모리로 쉽게 주문을 할 수가 있다.

사진인화에 있어서는 편리한 Interface로 사용자가 쉽고 빠르게 사진인화 주문이 가능하다. 인화를 하는데 10~15초가 소요가 되며, 사진의 품질을 현장에서 확인한 후 인화를 할 수 있다.

광고기능에 있어선 플래시 및 동영상파일로 제작한 광고를 화면에 삽입 할 수 있도록 지원이 되며, 지역별, 시간대별 다른 광고 출력으로 광고지원이 가능하다.

사용자의 편리를 위해서는 화면을 단순명료하게 처리하여 사용자가 쉽게 사용할 수 있게 구성했으며, 오랜 기술로 축적된 한국콘락스의 안정된 결제시스템이 적용



되었다는 점도 큰 장점이다.

'디카존 포토박스'의 가장 큰 경쟁력은 인화사진의 화질이다. 필름 인화사진보다도 뛰어난 화질의 인화사진을 제공, 소비자 만족도를 높였다.

한국콘락스는 '디카존 포토박스'는 앞으로 본격적인 시장 전개가 모색되게 된다. 그동안은 강원도 면은 보광 피닉스파크에 제품을 설치, 필드테스트 작업을 진행해 왔다. 관광지 특성상 주로 주말에 매출이 집중되는 편인데 기대이상의 매출로 높은 운영 효율을 입증시키고 있다고 한다.

이번 8월부터는 전국적인 판매 조직도 구축이 되어 시장개척 작업이 본격 이루어지게 된다. 이와 더불어 일부 기업들과의 사업 제휴도 본격 추진이 되고 있으며, 대만, 홍콩 등지로의 수출시장 개척 작업도 진행되고 있다.

과연 '디카존 포토박스'가 얼마만큼의 시장특수를 기록할 수 있을지 첨예의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그것은 디지털인화사진자판기가 과연 과거 스티커자판기 만큼의 시장 돌풍을 이끌어 낼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한 평가기준이 될 수가 있다.

'디카존 포토박스'가 속 시원히 그 시장 가능성을 입증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